

일본경제리뷰 No.18_06

< Special Issue >

최근 통상정책 환경 변화와 일본의 대응

Contents

<Special Issue>	1
I. 한일경제동향	5
II. 이달의 일본경제	
1. 경기·무역 동향	7
2. 경제정책	12
3. 기업전략	15
III. KJCF News	18
IV. 이달의 추천자료	22
V. 한일경제지표	23



〈 Special Issue 〉 최근 통상정책 환경 변화와 일본의 대응

1. 일본의 통상정책 환경 변화

1) 일본을 둘러싼 글로벌 밸류체인(GVC) 변화

-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서 중간재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 규범이 중요함

2) 확대되는 중국의 대외무역

- 2017년에는 중국을 최대 수입상대국으로 하는 국가들이 급증, 2017년에는 세계의 약 30%(57개국)로 제 1위를 점함
- 중국이 최대 수출상대국인 국가도 수입에 비하면 적지만 세계의 16%(30개국)로, 미국 다음가는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과잉생산으로 이어지는 보조금이나 국영기업의 우대 등에 대한 규범의 업데이트·강화가 과제로 되고 있음

3) 확대되는 디지털 무역

- 세계의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EC)시장은 2014년 2,36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9,940억 달러로 증가될 전망이다
- 국경을 넘는 EC 이용자도 동기간에 약 3억 명에서 9억 명을 상회할 전망이다
- 일본 국내 B2C, EC 시장도 확대경향에 있음. 중국의 2016년 인터넷소매시장규모는 9,394억달러로 EC화율(19%)과 같이 이미 세계 1위로 부상함

4) 디지털무역의 과제

-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제 유통을 저해하는 데이터로컬라이제이션 규제, 보안강제규격의 채택 요구, 소스코드의 공시요구 등 데이터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음
- 데이터에 관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데이터 처리의 이용비용 증가로 인한 국내 물가상승과 생산성하락 등의 요인에 의해, GDP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침
- IT 플랫폼을 둘러싼 기존 업종과의 공정한 경쟁환경 확보나 소비자보호·안전확보도 과제임

5) 미국과 중국의 보호주의 규제·강화

- 미국은 통상확대법 232조에 의해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수입제한을 실시하고 통상법 301조에 의한 조사를 확대
- 중국은 신 에너지차(NEV)에 대한 규제와 네트워크제품에 대한 사이버시큐리티법 등을 도입

2. 일본의 대응

1) 미일 정상회담

- 2018년 4월 17-18일 개최된 미일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킬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 다만, 미국은 2국간 접근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일본은 TPP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2) 일중 정상회담

- 2018년 5월 9일 개최된 일중정상회담에서 자유경제무역체제의 유지·추진을 위해 국제적인 규범에 기초하여 자유롭고 열린,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봄
- 또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나 한중일 FTA 교섭에 대해서도 협력강화를 확인함
- 제 3국에서의 협력이나 지구규모 과제에 대한 대응에 의견의 일치를 봄
- 양 정상은 제 3국에서 일중 민간협력에 관하여, 일중 고위급 경제대화를 기본으로, 관민합동으로 논의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하고, 또한 민간기업간 교류의 장으로서 포럼을 아베 총리의 방중시 개최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봄

3) 미국·유럽·일본 통상장관회담

- 미국·유럽·일본 3자가 제 3국에 의한 시장왜곡적인 조치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2017년 12월 12일, 일본 세코 경제산업대신의 요구에 의해 MC11(제11회 WTO 각료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개최
- 2018년 5월 30일 제 3차 회담을 개최. 이전 회담에서 합의한 제 3국에 의한 시장 왜곡 조치를 배제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관하여, 지금까지의 진척이나 앞으로 방향성에 관하여 논의하고 구체적인 공동성명에 합의함

4) TPP에 관한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협정 추진

- 2018년 3월 8일 칠레에서 11개국 중 6개국의 국내절차완료에 따라 발효됨
 - 2018년 5월 현재 멕시코가 비준을 마침
 - 콜롬비아, 태국, 대만, 영국 등 많은 국가·지역이 TPP 참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5) 일본·EU 경제연합협정(EPA)

- 일본·EU 경제연합협정은 2017년 12월 8일 타결
 - 총인구 약 6.4억 명, 세계 GDP의 약 28%를 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권이 탄생
 - 주요 합의내용은 관세,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투자 등

6) RCEP

- 16개 교섭참가국에서 세계 인구의 50%, 무역액 30%, GDP 30%를 점하는 광역경제연합
 -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서플라이체인의 효율적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규범을 제정, 역내에서는 공통된 규범으로 수속가능한 협정을 추진

7) WTO에서 전자상거래의 장래 규범 정비 추진

- 2017년 12월 일본·호주·싱가포르가 전자상거래 각료회담을 주최하고, 71개 국가·지역의 주요국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이에 기초하여 2018년 3월부터 주요국 회담을 매월 개최함
 - 각각 공동성명 비참가국도 포함하여 80개국 이상의 가맹국이 참가하여, 법적인 논점을 포함하여 알맹이 있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제까지 일본, 미국, EU를 포함한 12개국으로부터 장래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 등에 관하여 제안이 제출됐으며 앞으로도 매월 1회 정도 회담을 개최, 각 제안내용에 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임

8)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추진

- 2015년 9월에 UN에서 채택된 2030년까지의 개발목표로 17개의 목표 및 169개의 세부목표 달성에 의한 「한 사람도 도태되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함

- 일본은 2016년 5월 SDGs추진본부를 내각관방에 설치하고 일본의 추진 방침과 구체적인 시책에 관하여 논의함. 2017년12월 「SDGs액션플랜 2018」을 책정함
- 경제산업성에서도 SDGs에 도움이 되는 기업경영이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투자가의 대화를 촉진하는 가이드선의 활용이나, Society 5.0 실현을 위한 연결산업(connected industries)추진, 질 높은 인프라 보급 등의 시책을 전개

9) 2국간 제휴 강화

- 일본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러시아(8개 항목의 협력 플랜), 사우디아라비아(일·사우디 비전 2030), 아프리카(일·아프리카 관민 경제포럼), 인도(분야별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성명), 이스라엘(일·이스라비즈니스포럼)과 제휴, 협력을 강화

3. 시사점

- 주지하다시피, WTO 규범은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국제 규범이지만 많은 참여국들과 광범위한 취급대상 때문에 현실적으로 WTO에 의한 규율이 어려움
 - 이에 차선택으로 2국간 또는 다국간 FTA를 운용하는 것이 현실임
- 현실적으로는 한 국가가 WTO, 2국간 FTA, 다국간 FTA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 조합을 어떻게 구성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느냐 하는 폴리시믹스(policy mix)가 중요함
- 일본의 경우도 통상정책에 있어서 예외 없이 이들 3가지 선택지를 골고루 사용하고 있음
- 다만, 일본은 자유화를 통한 시장접근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FTA보다는, 2국간 또는 다국간 자유화와 제도의 조화, 나아가 협력까지를 포함하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또 2국간 EPA에 더하여 TPP, RCEP, 한중일 FTA등 다국간 또는 광역 FTA에 적극적임
 -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2국간 FTA를 실시하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은 2국간 FTA 대신에 TPP라는 광역 FTA를 미국과 추진하려 하고 있음
 - 이는 통상환경 변화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익을 극대화시키느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증표의 하나임

I. 한일 경제 동향

□ 무역

- 한일 간 무역은 구조적으로 품질 등에 의해 가격차이가 있는 산업내 수직적 제품 차별화 무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따라서 한일간 무역은 가격환산품질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큼
- 2017년 기준 한국 수출의 對日의존도는 4.7%, 수입의 대일의존도는 11.5%
 - 한편, 2017년 한국 제품의 일본수입시장점유율은 4.2%
- ‘18.5월 對日무역적자는 1,880백만 달러로 2개월 연속 감소
 - 대일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이 적자축소로 이어졌음
- 對日수출은 2,528백만 달러로 전월의 전월비 5.6% 감소에서 2.0% 증가로 반전
 - 산업용전자제품의 對日수출이 20.6%의 높은 증가폭을 보인 반면, 산업기계는 58.2%의 대폭적인 감소를 보임(한일경제지표 1 참조)
- 對日수입은 4,408백만 달러로 전월비 전월의 5.4% 감소에서 10.6% 감소로 감소폭이 확대
 - 정밀기계를 비롯한 對日수입 10대 품목 모두 대일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기초산업 기계와 수송기계의 대일수입감소폭이 15%대로 컸음(지표 2)

< 2018년 5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 달러,%) >

	2018.4월			2018.5월			2018.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기비
對日수출	2,479	17.6	-5.6	2,528	15.8	2.0	12,657	16.5
對日수입	4,929	7.9	-5.4	4,408	0.6	-10.6	23,538	5.4
무역수지	-2,450	-0.4	-5.3	-1,880	-14.5	-23.3	-10,881	-5.1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일본인투자

○ '18.1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급증

- '18.1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368백만 달러로 전기비 135.9%의 큰 폭 증가

○ '18.4월 일본의 對韓직접투자는 269억 엔으로 전기비 38.7% 감소

- '18.4월 對韓직접투자는 일본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0.6%

< 일본인투자 추이 >

	2017	2017.4분기	2018.1분기	2018.3월	2018.4월
일본인 투자(백만 달러, %)	1,862 (90.1)	156 (-82.0)	368 (135.9)	-	-
전체 외국인투자(백만 달러, %)	22,970 (7.8)	9,361 (134.6)	4,934 (-47.3)	-	-
일본의 對韓직접투자(억 엔, %)	4,112 (18.8)	924 (-27.8)	993 (3.3)	269 (-38.7)	316 (16.0)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억 엔, %)	559,108 (-18.0)	131,519 (-12.7)	203,157 (247.6)	120,104 (254.4)	55,655 (-54.7)

주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일본인투자는 신고기준, 일본의 대한투자는 국제수지기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재무성

○ (주)아사쿠라노리텐, 목포 대양산단에 투자

- 목포시와 전라남도가 6월 4일 전남도청에서 김가공업체인 (주)아사쿠라식품코리아 투자협약을 체결함
- (주)아사쿠라식품코리아는 목포 대양산단에 투자하는 제1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일본 기업인 아사쿠라노리텐(주)의 현지 법인임
- 아사쿠라노리텐은 일본 지바현, 중국 장쑤성 등에서 조미김 가공 공장을 운영 중으로 70억원을 투자해 대양산단내 5,163㎡부지에 김가공 거점공장을 건립하고 25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임(한국타임즈, 2018년 6월4일)

□ 인적교류

○ '18.5월 일본인 한국방문자 수, 증가

- 5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방문자수는 227,230명으로 4월보다 6.3% 증가

○ '18.5월 한국인의 일본방문자 수 근소한 증가

- 5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방문자 수는 640,400명으로 3월보다 0.3% 증가

□ 기타 한일경제 관계 관련 언론기사, 보도자료 등

- 한일 송전망 연결비용 시산결과(일본경제신문(2018.6.15.))
 - 일본 자연에너지 재단이 6월 14일 한국과 일본, 일본과 러시아를 송전망으로 연결하는 경우, 시산결과를 발표
 - 송전용량 2kw로 러시아의 사할린과 일본을 연결하면 건설비가 4,305억 엔 ~ 5,730억 엔, 한국의 부산과 일본은 2,024억 엔 ~ 2,465억 엔으로 시산
 - 동 재단은 전력매도가격과 탁송요금의 설정방식 여하에 따라 투자회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 일본으로서도 국제송전망은 탁상공론이 아니라며 일본정부에 검토를 요구했음

II. 이달의 일본경제

1. 경기·무역 동향

□ 2018년 1분기 GDP성장을 개정치, 속보치와 같은 -0.6%

- 일본 내각부가 6월 8일 발표한 2018년 1분기(1-3월기) GDP성장을 개정치는 속보치와 같은 전기비 -0.2%, 연율환산으로 -0.6%
 - 속보치와 비교하여 민간설비투자는 증가했으나 소비는 감소함
- 2017년도 실질 GDP성장은 1.6%로 속보치 1.5%에서 상향수정됨
- '18.1분기의 설비투자는 실질 전기비 0.3% 증가함
 - 일본재무성이 6월 1일 발표한 법인기업통계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속보치의 0.1% 감소에서 플러스로 반전함. 반도체 관련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됨
 - 민간주택도 1.8% 감소, 속보치 단계의 2.1%감소에서 상향수정됨
- 한편 GDP 전체의 60%를 점하는 민간소비는 0.1% 감소로 전기비로 근소한 마이너스였던 속보치 단계에서 하향수정됨

- 일본내각부에 의하면 소비관련 통계에서 2017년 4분기의 확정치가 증가한 결과, 2018년 1분기의 전기비에 영향을 미쳤음
-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경제재정·재생상은 소비가 회복하고 있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함
- 실질성장율에 대한 내수의 기여도는 0.2% 포인트의 마이너스, 수출은 0.6% 증가로 속보치 단계에서 변함이 없고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외수의 기여도는 0.06% 포인트의 플러스를 기록
- 그러나 앞으로 4-6월기에는 외수의 회복으로 경기가 다시 가속될 전망
- 다만 미중 무역마찰의 리스크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계경제에의 마이너스 영향으로 수출주도의 회복력은 약할 가능성이 있음

< 2018년 1분기 GDP성장율 내역 >

		2017	2017				2018p)
			1/4	2/4	3/4	4/4	1/4
GDP	전기비	1.7	0.7	0.5	0.5	0.1	-0.2
	연율환산	1.7	2.6	2.0	2.0	0.6	-0.6
개인소비		1.0	0.6	0.7	-0.7	0.3	-0.1
주택투자		2.7	1.1	0.9	-1.6	-2.7	-1.8
설비투자		2.9	0.4	0.9	1.0	0.7	0.3
정부소비		0.2	0.3	0.4	0.1	0.1	0.1
공공투자		1.2	0.0	4.7	-2.6	-0.4	-0.1
수출		6.7	2.1	-0.1	2.0	2.2	0.6
수입		3.4	1.6	1.8	-1.3	3.1	0.3

자료: 내각부, p)는 개정치(2차 속보치), GDP이외의 항목은 전기비 증가율

□ 완만한 경기회복세(지표 3)

- 경기는 완만한 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용·소득환경이 개선되는 가운데, 각종 정책의 효과도 있어 완만한 회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4월의 경기동향지수는 전월비 1.7포인트 상승한 117.7로 3개월 연속 상승
 - 자동차와 이륜차에 더하여 플랫패널디스플레이와 박형TV의 생산과 출하가 호조를 보인 것이 지수 상승에 기여
 - 일본 내각부는 19개월 연속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기초판단을 유지

- 4월의 실질소비는 전년동월비 1.3% 감소
 - 고온으로 인한 난방수요의 부진으로 광열비가 감소한 외에 교제비와 식비도 감소
 - 그러나 소매판매액은 전월비 1.3% 증가
- 민간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4월 기계수주액은 전월비 10.1% 증가
 - 생산용기계의 수주가 호조를 보임
 - 미중무역마찰에 대한 우려에도 설비투자를 보류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음
 - 「일본은행단판」(2018년 3월) 등에 의하면 2018년도 전산업 설비투자계획은 증가하고 있음
- 4월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비 0.5% 상승
 - 자동차와 기계류의 생산이 호조를 보임
- 4월의 완전실업율은 전월과 같은 2.5%. 4월의 유효구인배율도 전월과 같은 1.59배
 - 구인수의 증가에도 직종이나 근무지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미스매치 실업율」은 3% 정도
 - 신규 구인수는 전년동월비 4.6% 증가한 가운데,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에서 구인수가 크게 증가
- 5월의 실질수출은 전월비 8.7% 감소
 - EU에 대한 실질수출이 전월비 34.3% 감소로 크게 부진
 -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경기의 완만한 회복 등을 배경으로 회복될 전망
- 5월의 소비자물가는 생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로 전월과 같은 전년동월비 0.7% 상승
 - 유가상승에 따른 휘발유가격과 전기료의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전월비로는 0.1% 상승
 - 일본은 실물경제가 개선되는 셈치고는 물가와 임금 상승폭이 작은 편인데, 이는 2013부터 2015년까지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디플레이션 심리가 남아있어, 중장기적인 예상물가상승율이 좀처럼 상승하고 않고 있기 때문임
 - 일본이 강력한 금융완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임

□ 무역수지 3개월만에 적자 반전

- 5월 무역수지는 5,783억 엔 적자로 3개월만에 적자로 반전
 -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전월의 1,458억 엔 적자에서 2,802억 엔 적자로 확대된 한편,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6,157억 엔에서 3,407억 엔으로 축소
 - 수출이 감소했는데도 수입은 크게 증가한 것이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짐
- 5월 수출액은 전월비 7.3% 감소한 6조 3,233억 엔
 - 5대 수출품목 모두 감소한 가운데, 자동차의 수출 감소폭이 전월비 -19.4%로 가장 큰 반면 철강은 13.5%의 큰 폭으로 증가(지표 4)
 - 주요 국가·지역별 수출은 모두 감소한 가운데, EU에 대한 수출감소폭이 -15.0%로 가장 큰 한편, 한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은 -3.8%(지표 5)
- 5월 수입액은 전월비 11.3% 증가한 6조 9,016억 엔
 - 5대 수입 품목 중,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증가폭이 25.2%로 가장 큼(지표 6)
 - 주요 지역별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폭이 전월비 20.1%로 가장 큰 한편,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폭은 6.2%(지표 7)

< 2018년 5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8.4월			2018.5월			2018.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기비
수출	6.8	7.8	5.4	6.3	8.1	-7.3	33.1	6.1
수입	6.2	5.9	-6.1	6.9	14.0	11.3	33.2	8.5
수지	0.6	30.9	-25.0	-0.6	182.9	-	-0.1	-

자료 : 재무성

- 5월의 엔화환율(대미달러)은 109.7엔으로 전월비 2.1% 엔저
 - 최근 북미관계와 미일장기금리차가 환율변동에 주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 對원화환율은 100엔당 981원으로 전월비 1.2% 원고
- 4월의 해외직접투자는 전월비 53.7% 감소한 5조 5,655억 엔
 - 對한국 직접투자는 전월비 17.5% 증가한 316억 엔

○ 4월의 경상수지는 전월보다 41.0% 감소한 1조 8,451억 엔

-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된데다, 일본기업에 의한 해외광고료 지불 증가로 서비스 수지도 악화

□ 일본경제전망

○ 이토츠키 경제연구소(일본경제정보 2018년 5월호)에 의하면, 앞으로 일본경제는 미국발 무역마찰 격화와 북미관계의 불안이라고 하는 세계경제의 혼란 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는다면, 수출이 다시 증가세를 되찾고, 설비투자는 확대를 계속, 개인소비가 서서히 회복될 것임

- 이에 따라, 2018년 2분기에도 일본정부의 시산대로 연율 1.1%의 잠재성장율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되찾을 것으로 보임

○ 그 결과 2018년도의 GDP성장율은 1.3%로, 2017년의 1.5%에서 약간 감속될 것이나, 잠재성장율 이상의 성장을 확보, 디플레이션 탈출을 향해 접근할 것으로 보임

○ 2019년에도 세계경제의 견조세가 지속되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 설비투자는 소비세증세 이전의 가수요도 있어 소폭이나마 확대될 것임

- 그러나 10월의 소비세증세 실시에 따라 개인소비는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실질 GDP성장율은 0.9%로 감속, 잠재성장율을 하회하고, 디플레이션 탈출의 보폭은 다시 답보상태를 보일 것임

○ 또한 소비세증세로 인한 마이너스 영향은 전회 2014년 4월의 소비세증세 시에 비하여, ①서울의 인상폭이 적고, ②임금상승율이 높고, ③일부 상품에 대한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점 때문에 경기의 하강압력이 적어, 추가대책이 없어도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은 적음

○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경기의 지속적 확대와 확실한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소비세 증세의 영향을 완화하는 경제대책을 검토하고 있음

- 그 내용은 6월에 발표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서와 같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임

- 그러나 일본정부의 재정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제대책이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물가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재정적자의 확대가 장래 불안을 가중시켜 오히려 일본경제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가, 앞으로 경기동향을 전망함에 있어서 지켜볼 대목임

2. 경제정책

□ 2018년 경제재정운영의 기본방침과 성장전략

- 일본정부는 6월 15일 임시각의에서 2018년 경제재정운영의 기본방침과 성장전략을 결정하고 일손부족에 대한 대응책과 재정안정책이 초점이 되고 있음
- 일손부족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65세 이상의 건강한 고령자의 활용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확대임
 - 관련 정부당국은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로 보는 것은 이미 현실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70세 정년제도 시야에 들어오고 있음
- 경기회복이 6년째 들어 일본경제는 일손부족이라는 구조적인인 문제에 직면하게 됨
 -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는 2017년에 7,604만 명으로 2013년에 비하여 335만 명 감소했음
 - 한편 65세의 평균여명은 남성이 19.55년, 여성은 24.38년 정도로 퇴직이후 20년 가까이 연금을 받는 구도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지적임
-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에서 65세까지의 희망자의 계속고용이 정해져 있어, 60~64세의 취업률이 2017년까지 5년 동안 9.5포인트 상승했음
 - 한편 65세 이상 일하지 않고 있는 비취업자는 4년 동안 143만명 증가하고 있음
 - 만일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65-69세의 취업자가 80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만큼 건강한 고령자는 성장에 필요한 잠재적인 노동력이 되는 셈임
- 한편 일본정부는 새로운 재정건전화계획에 관하여 종래는 2020년도로 했던 기초적 재정수지(PB)를 흑자화하는 목표시기를 2025년도로 5년 늦추는 한편, 2021년도에 3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진척상황을 중간 점검함
- 어느 경우에도 GDP에 대한 PB적자의 비율이 1.5%정도로 억제되고 국채의 이자 비용을 더한 재정적자는 3% 이하, 채무잔고는 180%대 전반으로 억제함
 - 그러나 전제가 되는 경제성장율을 실질 2% 이상으로 높게 설정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는 대담한 세출개혁이 필요함
- 개혁의 중심은 예산의 1/3을 점하는 사회보장비의 억제임
 - 2022년도부터 단카이 세대가 후기고령자에 포함되어 사회보장비의 확대속도는 빨라지게 됨

□ 새로운 수출전략으로 엔차관 확대

- 일본정부는 6월 7일 경제협력 인프라전략회의를 열어, 해외자회사와 국내 부품업체가 엔차관을 활용하기 쉽게 하는 등, 지원책의 대상을 확대키로 함
 - 최근 외국기업과의 수주경쟁에서 일본기업이 패퇴하는 사례도 있어, 수주실적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
 - 이에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외국기업과의 제휴도 추진하여 신흥국시장의 개척을 지원함
- 이번 전략은 코스트경쟁력, 시장접근 및 정치적 리스크를 포함한 장기적인 리스크 분산이라고 하는 국내 관민협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과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외국기업과 제휴하여 수주를 목표로 하는 경우도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보다 많은 해외자회사가 저금리의 엔차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STEP엔차관」이라 부르는 방식으로, 저·중소득국에 대한 융자의 경우, 고정 기준 금리는 0.1%로 낮음
 - 종래에는 출자비율이 50%미만의 현지법인은 대상외였으나, 앞으로는 20%이상의 지분법적용회사인 경우에는 일정 조건하에서 인정해줄 방침임
 -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인프라시장은 역사적인 경위도 있어 인도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많음
 - 일본기업의 출자비율이 낮더라도 제휴상대의 강점 활용을 우선시하여 새로운 인프라 시장을 발굴함
 - 해외 조립메이커가 중심이 되어 수주한 안전에 대해서도 일본기업이 일정비율로 부재의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STEP엔차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일본이 강점을 지닌 기계부품의 수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새로운 수출전략은 6월 각의결정에서 미래투자전략에 포함될 예정임

□ AI 중심의 성장전략

- 일본정부가 6월에 완성할 성장전략의 원안이 밝혀짐
 - 이번 성장전략에는 자동운전차 보급을 중심으로 AI를 이용한 생산성향상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음

- 또 건강의료 분야에서도 데이터 활용 추진 등을 제시, 평균수명의 신장을 상회하는 건강수명을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동운전

- 자동운전차 보급을 중심으로 하고, 인간에 의한 운전을 전제로 한 도로교통법의 재검토를 2020년도까지 추진하기로 함
- 긴급시에만 운전자가 조작하는 「레벨 3」 상당의 자동운전차를 2030년까지 국내 신차 판매의 30% 이상으로 하는 목표를 설정함
- 자동운전의 규범작성에서 앞선 유럽을 추격, 기술개발의 주도권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인프라

- 국내 중요한 인프라와 노후된 인프라의 점검·진단의 업무에 대하여 일정 기술수준을 충족한 로봇이나 센서 등의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시설관리자의 비율을 2020년경까지 20%, 2030년까지 100%로 함

○ 디지털 행정

- 2020년도 말까지 인공지능(AI)·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등의 혁신적인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활용하는 지방공공단체 수 300개를 목표로 함

○ AI 인재 육성

- 정보처리기술자의 국가시험인 「IT 패스포트 시험」의 수험자 수를 2023년도까지 50만 명으로 함
- AI 분야 등에 종사하는 직업실천력 교육프로그램(BP)의 인정 수를 2023년도까지 배증함

○ 벤처·중소기업 지원

- 2018년도 시점에서 창업 10년 미만(미창업도 포함)의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10년 미만, 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을 2023년까지 20개사 창출

3. 기업전략

□ 도요타, 덴소와의 기간부품통합을 통한 재편전략

- 도요타 자동차가 6월 1일 덴소에 에코카용 전자부품사업을 통합시키기로 검토하기 시작함
 - 히로세(広瀬)공장의 생산을 덴소에게 이관, 개발기능도 통합하기로 했는데, 1937년 창업한 도요타가 국내공장을 서플라이어에게 이관한 것은 처음임
 - 전동화와 자동운전에 의한 변혁의 파도가 몰려오는 가운데, 차세대 기술도 포함하여 최적의 그룹으로 재편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임
- 이번 발표는 전부터 추진한 그룹재편과는 의미가 다름
 - 파워컨트롤유닛(PCU)라고 하는 전동화의 핵심부품이 대상이라는 것만은 아니고, PCU를 연간 80만대 규모로 생산하는 히로세공장을 덴소에 이관하는 것임
- 이제까지 브레이크와 시트 등의 사업을 그룹에서 집약해왔으나 국내공장을 이관한 것은 처음이며 약 1,600명의 전출 등을 앞으로 노사에서 협의함.
 - 덴소에 대한 도요타의 출자비율은 약 24%임
- 도요타의 목적은 중복해소로, 덴소도 안쵸(安城)제작소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함
 - 이관에 의해 비용을 줄이고 기술의 상승효과도 끌어낼 수 있음
 - PCU는 차대전지의 전력을 변환하는 인버터 등으로 구성, 전기자동차(EV)의 항속 거리의 열쇠를 쥐고 있음
- 도요타는 「home&away」의 관점에서 그룹 전체의 사업을 재구축해나겠다고 함
 - 경쟁력 있는 사업이나 지역을 home, 그룹기업과 제휴선 쪽이 전문성이 높은 분야를 away로 설정하고 부품의 내제를 중시한 자전주의(自前主義)로부터의 탈피를 선명히 하고 있음
- home&away 전략으로의 최초 협력 상대가 덴소임
 - 엔진 관련이나 에어컨, 전자부품과 폭넓게 전개하는 덴소의 연간매출액은 5조 엔을 넘음
 - 「프리우스」와 「아쿠아」 등의 하이브리드차(HV)에 다수의 전자부품을 공급하고 EV에 통하는 기간기술을 축적해왔음

- 전동화에 필요한 3대 요소 중 모터와 인버터를 직접 다루고, 또 하나의 기간부품인 전지에서서도 제어에 필수불가결한 ECU(전자제어유니트)에 강함
 - 텐소는 1950년 차체도 포함하여 EV「텐소호」를 개발한 적도 있으며 1회 충전의 주행거리는 약 200Km. 축적된 전동기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
- 그룹에 EV기술은 있는데도 도요타는 전지의 재이용이나 충전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EV추진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함
 - 이러던 중에 2017년 세계 최대의 중국이 일정비율의 EV생산을 의무화할 방침을 제시, 세계 시장과 자동차가 EV로 전환하기 시작함
 - 제품화에서 뒤늦은 도요타는 그룹내 중복을 해소하고, 전동화에 인원을 돌리는 재편성이 필요하게 됨
- 텐소에 사업을 이관한 것은 도요타와 사원들이 융합에 의한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도요타로부터 사원이 진출, 전문성이 높은 텐소사원으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전동화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음

□ 소니, 방어의 성장전략

- 소니가 5월 22일 3개년 중기경영계획을 발표함
 - 4월에 취임한 요시다 겐이치로(吉田憲一郎)사장 겸 CEO는 단기적인 이익성장을 추구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수익력을 끌어올리는 방침을 선명히 하고, 음악회사의 매수를 발표하는 등 콘텐츠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체제로 전환함
 - 방어를 확고히 하면서 성장을 씨앗을 뿌리겠다는 발상임
- 소니는 2018년 전기계획의 최종년도였던 2018년 3월기에 영업이익이 7,348억 엔으로 20년만에 최고이익을 달성했음
 - 히라이 가즈오(平井一夫) 전 사장은 전기계획에서 최종년도의 영업이익을 7배 이상인 5,000억 엔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했음
- 반도체사업의 빠른 회복으로 결과는 목표치를 크게 상회했으나, 뒤를 이은 요시다 사장에게는 위기감이 있었음

- 소니에는 시장점유율이나 이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인 시책에 편중한 결과, 영업실적이 심한 기복을 보인 과거가 있음
- 요시다 사장은 이번 계획에 대하여 전 사장이 내놓은 디지털드림키즈와 같은 화려한 슬로건이나 수치목표보다도 수익력을 강화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
- 그 대신 중시하는 것이 자산매각이익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업 cash flow의 3년간 누계임
- 금융분야를 제외한 최근 3년간 대비로 5,000억 엔 증가한 2조 엔의 목표를 내걸고 있음
- 일렉트릭기타나 게임 등 주력 4개 사업에서는 이익목표를 설정했으나, 3개 사업에서는 전기를 하회하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보였음
- 요시다 사장은 이익성장보다도 리커팅(계속적으로 수익을 냄)비율의 증가로 이익의 질을 높이는 것을 중시하고 있음
- 그 의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움직임이 유력 악곡 저작권을 가진 EMI의 매수이며 소니로서는 과거 두 번째 규모인 약 23억 달러의 매수임
- 음악이나 동화는 인터넷 배신이 당연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수익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짐
- 유력한 콘텐츠는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과금형 비즈니스의 핵심임
- 인기 캐릭터 snoopy 등의 판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취득 등 연달아 신속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나아가 앞으로 3년 후 2조 엔의 cash flow 중 1조 엔을 설비투자에 충당할 생각인데,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스마트폰용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이미지센서로서, 자동운전 분야에서 채택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대형 대형가정용 로봇 「aibo」로 대표되는 인공지능(AI)와 로봇기술을 조합시킨 분야나 의료분야에도 주력할 계획임
- 그 어느 것도 기술기반은 확실하나 수익공헌에는 시간을 요하는 분야로 2021년 3월 말이라는 목표를 설정하면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움
- 소니는 향후 장기적으로 견인력이 되는 사업에 주력할 계획임. KJCF

III. KJCF News

□ 한일재단 사업 및 행사 개최 결과

2018 기술인재양성교육

일시 : 2018년 6월 20~22일

장소 : 경기도 오산 롯데인재개발원

개요 : 일본의 우수퇴직기술자를 강사로 초청,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

규모 : 8개 교육과정 51명 (교육생 43명, 지도 기술자 8명)

한국경제

프린트 닫기

서석송 한일재단 전무 "4차 산업혁명 말하기 전에 제조업 현장 '기본기'부터 갖춰야"

입력 2018-06-27 11:13 수정 2018-06-27 13:42

"4차 산업혁명이란 뭔가 일순간에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고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을 때 새로운 개념과 기술의 도입을 통해 한층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산업의 기초가 부족하면 4차 산업혁명을 하겠다는 건 허상입니다."

지난 20~22일 경기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 △금형설계 △로봇 △사출성형 △소성가공 △열처리 △자동화 △절삭가공기계 △표면처리 등 '2018 기술인재양성교육' 8개 과정을 진행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서석송 전무(사진)는 뿌리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생산 공장에서 깎고 찍어내고 가열하는 기술을 다루는 것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이 핵심기술로 거론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정공법을 설팬한 셈이다."

서 전무는 "국내 중소기업의 현실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장 정라정돈부터 동선 확보, 불량률 개선 등 비효율과 낭비를 줄이는 것조차 아직 완벽하지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우산'을 씌워봤자 제대로 작동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선연적 구조에 그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4차 산업혁명 개념이 처음 등장한 독일도 제조업 강국이란 점에서 그의 지적은 설득력 있다. 서 전무는 "대기업 출신 지도위원들이 중소기업 현장에 가면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할 정도라고 한다. 이 같은 현실을 알수록 더욱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확신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한일재단이 10년 전부터 일본 우수 퇴직기술자 유치 활용사업을 진행해온 이유다. 국내 기업 현장지도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12년 기술인재양성교육도 실시하면서 교육 및 사후관리가 연동되는 유기적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재단이 이를 주관하는 것은 출범 배경과 취지를 들여다보면 쉽게 납득된다. 한국은 일본에서 부



인경닷컴

서석송 한일재단 전무 / 사진=한경DB

품소재를 수입, 완성조립해 수출하는 산업구조 탓에 1992년에는 대일 무역적자가 79억달러까지 늘었다. 당시 전체 교역량의 5%에 이르는 수치였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그해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의 결과물로 한일재단이 설립됐다.

서 전무는 "부품소재 및 기초기술 분야 양국 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재단의 태생적 역할"이라며 "연수생과 강사를 모으고(gathering) 맺어주며(matching) 훈련시키는(training) 기술인재양성교육도 그 일환이다. 민간 부문에서 양국 신뢰를 쌓는 작업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기업이 자금설비인원을 투입하면 수익은 늘어나죠.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해야 할까요. 결국 기술이 중요합니다. 기술력 향상으로 효율을 높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게 중소기업의 돌파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국내에서 방법이 잘 안 보인다면 일본에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한일재단이 소수정예 매칭 교육을 시작한 것이죠."

현직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꾸준히 사업을 이어오며 확보한 일본 우수 퇴직기술자 750여명 데이터베이스(DB)는 고스란히 재단의 자산이 됐다. 국내 중소기업들 사이에 일소문을 타면서 한일재단을 통해 30년 이상 경력 일본 장인들의 기술지도를 받은 회사만 500건이 넘었다.

참여 기업들의 불량률 개선 효과는 31.8%에 달한다. 생산 시간(리드 타임)도 평균 15시간 단축됐다. 연간 매출 7571억원 상승, 비용 390억원 절감, 수출 5720억원 증대 등의 가시적 성과가 뒤따랐다.

하지만 서 전무는 "이 같은 수치를 100% 재단의 교육 및 사업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적을 과대 포장하기보다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의 중요성'에 무게를 뒀다.

그는 틈 날 때마다 참여 기업들에게 협세가 투입된 교육임을 역설하곤 한다. 서 전무는 "예컨대 미국에선 국민보다 '납세자(taxpayer)'라는 호칭을 즐겨 쓴다"면서 "그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달라는 취지다. 피상이 아닌 심층, 겉멋이 아닌 진실로 임해야 한다"고 힘써 말했다.



< 개강식 >



< 성과토론회 >

한국경제

프린트 | 알기

"日강사라 믿음직...韓교육생 열정적" 서로 통했다

입력 2018-06-27 15:17 수정 2018-06-27 16:15



2018 기술인재양성교육 사출성형 과정. 앞줄 오른쪽 2번째가 연재현 부장이다. / 사진=한일재단 제공

현업 애로 과제를 들고 온 국내 중소기업 임직원도, 강사로 초청된 일본 우수 퇴직기술자들도 무척 만족도가 높았다. 지난 20~22일 경기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2018 기술인재양성교육은 일본인 강사진과 한국인 연수생 모두 "2박3일이 너무 짧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최하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금형설계(프레스금형) △로봇(적용기술) △사출성형(플라스틱) △소성가공(금속) △열처리 △자동화(FA) △정밀가공기계 △표면처리(도금) 8개 과정으로 나뉘었다. '문제 해결형 교육과정'을 포함한 만큼 과정당 연수생을 최대 6명으로 제한해 집중도를 높였다. 과정마다 통역을 붙여 실질적 도움이 되는 소수정예 교육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2박3일간 이들은 국적을 넘어 마음을 터놓는 사제지간이 되었다. 마지막 프로그램인 성과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인 연수생들은 "장인으로 소문이 자자한 일본인 선생님이라 더욱 믿음이 갔다"고 말했다. 일본인 강사들도 "한국인 연수생들의 열성적 모습에 더욱 열심히 가르치려 노력했다"고 회답했다. 단순 기술교육을 넘어 한일 양국의 신뢰를 쌓는 자리로 발전한 셈이다.

사출성형과정 수료한 연재현 부장
"이론적 궁금증 해소할 수 있었다"

- 간단히 자신을 소개해 달라.

"경기 안양에 소재한 ㈜진영정밀에서 품질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전체 임직원들이 20명 가량 되는 회사다. 일한 지는 15년 정도 됐다. 이번 교육에는 사출성형 과정에 참여했다."

- 어떤 계기로 교육에 참여했나.

"회사가 금형 제작을 한다. 금형 제작은 사출성형에 필요한데 사출성형을 잘 모르니 담당하더라. 고객사와 의견을 주고 받는 데도 한계가 있고... 관련 지식이 있으면 의견 제시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한 사출성형은 어떤 것인지 배우고 싶어 교육에 참여했다."

- 교육 수료 소감은.

"2박3일 교육기간이 금세 지나갔다. 사실 처음엔 일본인 강사 분이라 가르쳐주는 걸 제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 수 있을지 걱정도 했다. 선생님도 열심히 가르쳐주고 통역도 잘 돼 좋았다. 공부할 때 하고 싶은데 기간이 짧아 아쉽게 느껴질 정도다. 회사와 한일재단이 약 5년부터 인연을 맺었다. 금형 수출, 현지 비즈니스 매칭(business matching) 주목적이었는데 재단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많더라. 이번 교육 참여가 좋은 기회가 됐다."

- 인상 깊은 점이 있었다면.

"사출성형 과정 강사분 아니라 다른 과정 강사 분들도 모두 연배가 워낙 퇴직기술자들이었다. 국적도 언어도 다르고. 그럼에도 친근하게 대해주고 질문에 답변도 친절하게 해줬다. 2박3일 동안 많이 가까워졌다. 개인적으로 사진 촬영을 무척 좋아한다. 시간과 장소가 가리지 않고 사진 찍었는데 귀찮아하지 않고 응해준 모든 분들에 감사드린다(웃음)."

- 국내 지도와 차이점이 있는지.

"일본인 강사라서 더 믿음이 갔다. 금형이나 사출 기술에서 일본이 조금 앞서있으니. 국내에서 배운 적도 있는데 주로 경험 위주 강의였다. 이론적으로는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까. 예를 들어 사출성형의 조건, 이를테면 압력속도온도 등을 조정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명쾌한 대답을 못 들었다. 경험상 그렇다는 식이었다. 그런데 이번 교육에서는 이론적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다. 점수를 매기자면 A+ 이상을 주고 싶다."

- 어떤 과정이든 이론이 중요하네.

"그렇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3D(Dirty/Difficult/Dangerous) 산업이란 인식 탓인지 이론보다는 경험



사출성형과정을 수료한 연재현 부장(오른쪽)이 가토 히데아키 강사와 기념촬영했다. / 사진=한일재단 제공

에 의한 눈대중이나 어림짐작으로 대신하곤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갈증이 있다. 교육이 진행될수록 선생님의 충실한 답변에 더 욕심이 생겨 적극적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책이나 인터넷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을 정말 많이 배워간다. 회사가 하는 금형 제작과 사출성형은 별 수 없는 관계로 많은 부분 사출성형의 문제점이 곧 금형 제작의 문제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출성형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면 금형 제작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회사로 돌아가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회사의 금형 설계 담당자에게 교육에서 익힌 내용을 정확히 전하려 한다. 빨리 현장에 적용해보고 싶다. 배운 걸 잊어버리기 전에 돌아가자마자 전화해 우리 노하우로 만들 계획이다."

열처리과정 니하라 노부히로 강사
"열성적 자세, 활발한 논의 인상적"

- 경력이 궁금하다.

"열처리 관련 일을 한 지는 50년 조금 넘는다. 도쿄도립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다. 공장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소에서 주로 일본 중소기업 기술지도를 했었다."

- 지금 하는 일과 비슷하네.

"여러 생산 현장을 돌아다니며 기술지도를 했으니 한국에서도 같은 역할을 맡은 셈이다. 지금도 일본에서 2개 기업의 기술고문 형태로 월1회씩 방문해 지도하고 있다. 기술지도 하려면 스스로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도 유사하다."

- 한국에서 지도하게 된 계기는 뭐였나.

"한일재단처럼 일본에도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이 있다. 일한재단에서 여러 번 강의나 세미나도 하고 책도 쓰는 등 관계를 맺어왔다. 일한재단을 통해 한일재단의 의뢰를 받았다. 이 교육 같은 경우 2012년 시작해 올해로 7년째 됐는데 저는 매번 참석했다."

- 기술지도 하면서 느낀 양국의 차이점은 없는지.

"특별히 다른 점은 없지만 한국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배우려 달려든다. 가르치는 저까지 열정이 생길 정도다(웃음).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공부하기도 한다. 한국이 일본보다 설비 면에서는 더 뛰어난 부분도 있다. 단 설비가 좋아도 기본 지식이 부족해 설비를 100% 활용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나.

"핵심은 연수생들이 갖고 온 과제를 논의해 해결하는 것이다. 일반적 강의가 아니라 현장 애로점을 푸는 실용적 강의이므로 참석자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다. 물론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완벽한 해결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 이번 교육과정의 특징을 꼽는다면.

"연수생들이 들고 온 과제가 많았다. 열면 토론이 벌어졌고 서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한다' 등 도움 될 만한 의견들이 활발히 오갔다. 특정 인물이나 일부가 아니라 전원이 논의에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구체적으로 강의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기술의 전문적 내용을 설명하긴 어렵지만 개략적으로 정리해보겠다. 열처리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난다. 열처리에 표면 강화를 강하게 했는데 변형되면 못 쓰지 않나. 진공 열처리를 하면 깨끗한 면을 얻을 수 있는데 변형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게 교육의 골자다."

- 2박3일 안에 해결하기 쉽지 않겠다.

"설비 문제나 제품 형상의 복잡성 등에 따라 열처리 조건이 달라진다. 교육에서는 사진을 보고 이런 식으로 설치를 바꿔보라든지, 온도시간 등 가공 조건을 바꾸라든지, 열처리 시 가열 및 냉각 시간을 조절해보라든지... 여러 조언이 도출된다. 그러면 회사에 돌아가 직접 적용해본 뒤 피드백을 주고 한다. 추후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뒤 지도한 사례도 있다."



2018 기술인재양성교육 열처리 과정 강의를 하는 이가 노부히로 강사다. / 사진=한일재단 제공

자료: 한국경제(2018.6.27)

□ 한일재단 모집 안내

1) 2019년도 일본우수퇴직기술자 기술지도사업 상반기(1~7월) 참가신청 모집

- 일본 우수퇴직기술자를 초청하여 산업현장에서 기술지도 실시
 - 지원 분야 : 제조업 생산기술 전 분야
 - 지원 내용 : 자문료, 체재비, 항공료, 통역료의 일부
- 대상 : 중견·중소기업(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S/W 업체 포함) 약 50개사
- 매칭상담회
 - 일시 : 2018년 9월 19일(수) 09:00~18:00
 - 장소 :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303, 304호)
 - 형태 : 일본 기술자와 1:1 상담
- 신청기간 : 2018.7.31.(화) 18:00까지 서류를 메일로 송부

☞ 자세한 내용은 http://kjc.or.kr/news/recruit_view.jsp?recr_idx=4486 참조

2) 2018년도 한일산업협력상 안내

- 한일재단에서는 한일 양국간의 산업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간 산업기술 및 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
- 포상 부문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포상 6개(기업부문/개인부문)
- 포상 일시 : 2018년 9월 19일(수)
- 장소 : 일산 킨텍스(한일산업기술페어 개최식에서 수여)
- 신청기간 : 2018.6.29.(금) 까지 우편접수

☞ 자세한 내용은 http://kjc.or.kr/news/recruit_view.jsp?recr_idx=4485 참조

3) 제조혁신으로 경쟁력 UP! 모노즈쿠리 기반 스마트팩토리 세미나 개최 안내

- 목적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장력,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모노즈쿠리 기반 스마트팩토리 저변 확대
- 일시 : 2018년 7월 13일(금) 15:00~17:30
- 장소 : 성서산업단지내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 세미나실
- 프로그램 : 2시간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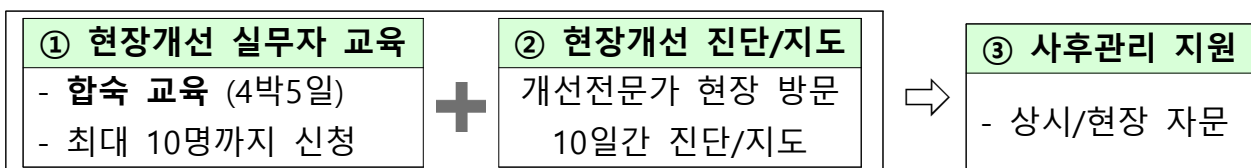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인사말씀	서석송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
15:05~15:10		대구광역시 관계자
15:10~15:50	모노즈쿠리 이해	조용원 지도위원(모노즈쿠리 인스트럭터)
15:50~16:30	모노즈쿠리 기반 스마트팩토리	정영웅 지도위원(모노즈쿠리 인스트럭터)
16:30~16:40	휴식	
16:40~17:10	모노즈쿠리 기반 스마트팩토리 도입 성과사례	민수홍 (주)프론틱 대표이사
17:10~17:30	한일협력사업 소개	- 모노즈쿠리 인스트럭터 양성 사업 - 모노즈쿠리 관리자 양성 - 제4차 산업혁명 IoT 연수 - 일본기술자 초청 기술지도 등

- 신청기간: 2018.7.11.(수)까지 (정원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http://kjc.or.kr/news/recruit_view.jsp?recr_idx=4488 참조

4) 2018 뿌리기업 강한현장 육성사업 참가기업 모집

- 목적 : 생산공정관리기법을 적용한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 내용 : 뿌리기업의 생산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① 현장개선 실무자 교육』과 뿌리기업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② 현장개선 진단·지도』 『③ 사후관리 지원』으로 구성



- 사업 특징 :
 - 현장작업자 교육 후 향후 자주적이고 효율적인 개선활동 가능
 ※코스트 다운, 품질개선, 불량률 감소, 공정흐름개선, 물류개선 효과
 - 모노즈쿠리(통합적 관리)시스템 및 스마트 공장 구축 기반조성
- 신청기간 : 2018.7.6.(금) 18:00까지 이메일 도착분

☞ 자세한 내용은 http://kjc.or.kr/news/recruit_view.jsp?recr_idx=4489 참조

IV. 이달의 추천자료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리포트(<http://www.kjc.or.kr/jpinfo/report.jsp>)

- 『오너경영을 넘어-오야츠컴퍼니』 2018-06-21
- 『농업을 첨단으로_스미토모화학』 2018-06-19
- 『은행에서 벗어나다-오가키통업은행』 2018-06-14
- 『건설기계의 벤츠-다케우치제작소』 2018-06-12
- 『일본 수출기업의 환율전략』 2018-06-07
- 『패배의식에서의 탈출-메가네슈퍼』 2018-06-05
- 『식품업계의 유니클로-신메이』 2018-05-31
-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2018-05-29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노즈쿠리 활용 방안』 2018-05-24

□ 일본기관 연구보고서

- 『세어링 이코노미가 일본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취해야할 전략』 미즈호종합연구소, 2018년 6월 22일
https://www.mizuhobank.co.jp/corporate/bizinfo/industry/sangyou/pdf/mif_209.pdf
- 『신산업비전을 고려한 일본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사』 경제산업성, 2018년 6월 20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H29FY/000274.pdf
- 『2018년판 불공정무역보고서』 경제산업성, 2018년 6월 19일
<http://www.meti.go.jp/committee/summary/0004532/2018/houkoku01.html>
-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일본 내각부, 2018년 6월 16일
<http://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18/decision0615.html>
- 『미래투자전략 2018』 일본내각부, 2018년 6월 16일
http://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18/0615/shiryo_03-2.pdf
- 『일본의 경상수지구조 변화 : 무역입국에서 투자입국으로』 재무성, 2018년 6월 16일
https://www.mof.go.jp/public_relations/finance/201806/201806e.pdf
- 『일본 생산성의 약점』 제일생명경제연구소, 2018년 6월 9일
<http://group.dai-ichi-life.co.jp/dlri/pdf/macro/2018/kuma180608ET.pdf>
- 『대외경제정책의 현황과 금후 방향성』 경제산업성, 2018년 6월 9일
http://www.meti.go.jp/committee/sankoushin/tsusho_boueki/005_haifu.html
- 『인프라시스템 수출전략』 일본 총리관저, 2018년 6월 8일
<https://www.kantei.go.jp/jp/singi/keikyoku/dai37/gijisidai.html>
- 『일본은 어느 나라와 업종으로부터 TPP11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국제무역투자연구소, 2018년 6월 1일
<http://www.iti.or.jp/kikan112/112takahashi.pdf>
- 『2018년판 모노즈쿠리백서』 경제산업성, 2018년 5월 30일
http://www.meti.go.jp/report/whitepaper/mono/2018/honbun_pdf/index.html
- 『세계의 구조변화와 일본의 대응』 경제산업성, 2018년 5월 29일
http://www.meti.go.jp/committee/sankoushin/pdf/022_02_01.pdf
- 『인프라 수출전략과 일본경제의 부양효과』 JICA연구소, 2018년 5월 25일
https://www.jica.go.jp/jica-ri/ja/publication/other/l75nbg00000p2wrg-att/20180514_01.pdf

V. 한일경제지표

1) 2018년 5월 對日수출 10대 품목 (백만 달러, %)

순 위	품 목 명	2018.4월			2018.5월			2018.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기비
	총 계	2,479	17.6	-5.6	2,528	15.8	2.0	12,657	16.5
1	철강제품	344	6.8	0.3	370	10.2	7.6	1,740	8.6
2	광물성연료	330	63.6	-5.7	284	12.9	-14.0	1,924	57.8
3	석유화학제품	212	34.8	16.5	204	42.3	-3.8	910	30.3
4	정밀화학제품	158	34.9	-6.0	179	53.8	13.3	819	40.7
5	전자부품	153	9.1	-10.0	164	15.5	7.2	764	8.7
6	수송기계	127	23.0	11.4	120	2.3	-5.5	601	-11.0
7	산업용전자제품	97	-18.1	-41.6	117	13.1	20.6	643	8.1
8	농산물	95	19.4	-2.3	99	18.5	4.2	464	11.2
9	기계요소공구· 금형	81	-9.1	-12.0	92	-3.0	13.6	442	-1.6
10	산업기계	196	8.9	-4.4	82	29.0	-58.2	375	27.0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2018년 5월 對日 수입 10대 품목 (백만 달러, %)

순 위	품 목 명	2018.4월			2018.5월			2018.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기비
	총 계	4,929	7.9	-5.4	4,408	0.6	-10.6	23,538	5.4
1	정밀기계	721	5.6	-15.7	644	-8.2	-10.7	3,633	9.5
2	철강제품	602	16.0	-7.9	562	16.7	-6.7	2,897	15.6
3	전자부품	524	8.6	-13.5	450	-10.2	-14.2	2,641	2.3
4	정밀화학제품	443	25.3	8.6	380	22.4	-14.3	1,981	18.6
5	석유화학제품	343	-15.2	-3.4	310	-18.8	-9.6	1,723	-14.1
6	산업용전자제품	285	19.4	-7.2	267	17.7	-6.3	1,355	14.6
7	기초산업기계	251	-17.3	-8.4	212	-12.1	-15.5	1,197	-10.6
8	수송기계	243	26.5	-16.5	206	-9.5	-15.2	1,139	11.9
9	플라스틱제품	201	3.8	2.6	183	-0.8	-9.0	926	-1.1
10	산업기계	197	9.2	-4.0	168	-16.0	-14.7	875	-2.8

자료 : 한국무역협회

3) 일본 주요경제지표

구 분		2017	2017		2018			
			3/4	4/4	1/4	3월	4월	5월
GDP증가율(실질,연율,%)		1.7	2.0	1.6	-0.6p)	-	-	-
경기동향지수(2010년100)		-	-	-	-	116.0	117.7	-
광공업생산증가율(전기비,%)		4.5	4.2	4.6	-	1.4	0.5	-
실질소비증가율(전년비,%)		-0.3	0.0	0.5	-	-0.7	-1.3	-
기계수주액증가율(전기비,%)		-1.1	2.8	0.3	-	-3.9	10.1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기비	0.5	0.1	0.3	-	0.0	0.2	-
	전년비	0.5	0.6	0.9	-	0.9	0.7	-
실업률(%)		2.8	2.8	2.7	-	2.5	2.5	-
수출액(조엔)		78.3	19.6	20.9	6.7	7.4	6.8	6.3
수입액(조엔)		75.4	18.4	20.1	6.7	6.6	6.2	6.9
무역수지(조엔)		2.9	1.2	0.8	-0.02	0.8	0.6	-0.6
경상수지(조엔)		22.0	7.0	4.3	5.8	3.1	1.8	-
해외직접투자(조엔)*		55.3	11.5	13.1	20.3	12.0	5.6	-
환율	달러	112.1	111.0	113.0	108.1	106.0	107.4	109.7
	원화(100엔)	1,009	1,020.3	1,001	990	1,011	993	981
금리(10년물,%)		0.052	0.046	0.052	0.059	0.040	0.050	0.030
주가(닛케이,엔)		20,209	19,880	22,187	22,367	21,396	21,869	22,590

주: p)는 1차 속보치 *실행액 기준,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4) 2018년 5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억엔,%)

순위	품목	2018.4월			2018.5월			2018.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기비
1	자동차	10,712	15.3	-2.3	8,629	7.1	-19.4	49,879	10.1
2	반도체 등 전자부품	3,411	4.3	-1.5	3,215	8.4	-5.7	15,115	-3.2
3	자동차부품	3,389	0.3	-6.9	3,086	10.4	-9.0	16,082	3.0
4	철강	2,618	1.1	-13.8	2,972	7.8	13.5	13,979	3.0
5	반도체 등 제조장치	2,324	18.0	-15.1	2,331	23.4	0.3	11,993	16.8

자료 : 일본 재무성

5) 2018년 5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억 엔, %)

순위	국가	2018.4월			2018.5월			2018.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기비
1	중국	13,169	10.9	-8.5	12,723	13.9	-3.4	62,690	10.2
2	미국	12,863	4.3	-5.1	11,459	5.8	-11.0	61,308	3.1
3	ASEAN	10,126	7.6	-11.1	9,944	11.2	-1.8	50,664	8.1
4	EU	8,193	14.1	2.0	6,972	0.7	-15.0	38,182	8.8
5	한국	4,813	-4.3	-12.2	4,631	-0.6	-3.8	24,477	-0.2
6	대만	3,832	0.8	-6.2	3,750	12.5	-2.1	18,895	2.9

자료 : 일본 재무성

6) 2018년 5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 엔, %)

순위	품목	2018.4월			2018.5월			2018.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기비
1	원유	6,643	16.9	-8.0	6,794	28.6	2.3	34,365	12.2
2	액화천연가스	2,959	-4.0	-28.4	3,502	13.1	18.4	19,032	10.7
3	의약품	2,151	2.0	-3.9	2,694	17.8	25.2	12,294	12.3
4	석탄	2,175	13.9	2.7	2,358	12.8	8.4	13,169	22.8
5	의류·동부속품	2,513	4.4	10.8	2,329	13.4	-7.3	13,499	10.2

자료 : 일본 재무성

7) 2018년 5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 엔, %)

순위	국가	2018.4월			2018.5월			2018.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기비
1	중국	14,627	2.2	8.5	15,525	8.6	6.1	76,076	3.3
2	ASEAN	8,895	1.2	-13.3	10,266	9.2	15.4	50,556	8.2
3	EU	7,163	9.0	-12.6	8,210	12.0	14.6	39,087	12.5
4	미국	6,706	3.9	-8.5	8,052	19.9	20.1	35,709	7.6
5	호주	3,874	12.9	-0.01	4,171	21.1	7.7	19,952	13.1
7	한국	2,741	16.7	-9.0	2,911	12.7	6.2	14,591	14.3

자료 : 일본 재무성